

芝园欢乐节

芝园团地自治会役員 岡崎广树

大家是否知道川口市外国人住民居住最多的团地么? 这里是蕨车站徒步8分钟的地方。与蕨市临界的芝园团地。芝园团地人口约5千人。其中2千以上是外国人住民。其中绝大多数是中国人, 是日本最有名的团地之一。

芝园团地在2014年10月, 11月的4日内, 举办了亚洲国际交流展会“芝园欢乐节”。主题是「交流理解」。

在外国人住民逐年增加的情况下, 日本人与外国人却完全没有任何交流。看不到邻居的脸, 互相之间会积累不满。芝园团地商店会为了构筑住民之间相互认识的关系, 并让住民们能够到商店会来, 增加地区的活力为目的而举办了这次活动。

会场准备了舞台和展台。芝园团地的中国人住民的孩子们在舞台上表演了合唱。孩子们努力的在舞台上欢唱舞蹈的样子是不分国界的。孩子们的天真浪漫的歌声回荡着, 给芝园团地的老年人带来了无比的健康快乐。

芝园团地自治会的展台介绍日本的传统文化, 折纸教室和打年糕等。另外, 中国人住民们提供家庭的美味馄饨等以及介绍中国的传统游戏。食物和游戏是没有国界的, 通过交流, 仿佛感觉互相之间的心一下子接近了很多。王子国际语学院的越南留学生, 介绍了传统的美食米面, 表演了思念故乡以及爱恋的歌曲。芝园团地欢乐节, 虽然规模很小, 但是确实实现了日中越之间的多文化交流。此外, 主题是「交流理解」, 活动的压轴戏是烛光晚会。蜡烛都是由住民们亲手制作的。大家在杯子上写上各自的寄语, 活动结束后可以把蜡烛带回家。这些寄语验证了地区住民的「交流理解」。

各种不同背景的人群, 共同在地区中生活听上去是很美好的事情。但是由于文化, 生活习惯的不同会引发很多问题。现今日本同样的时代, 同样的时间, 共同的地点, 共有存在是不可否认的事实。

蜡烛所释放的光亮包含了互相尊重的生活的意愿。当天的录像, 可以在youtube『芝園にぎわいフェスタ』看到。

最后, 芝园团地商店会的平井副会长发表了谢礼结束了活动。

“芝园是美好的街市。芝园对外国人也很友善。另外, 芝园也是大家的故乡。往后希望地区的住民们一起携手共同建设繁荣的团地。”

是的, 真心希望在芝园团地居住的所有人都能把团地看作是自己心中的故乡。

시바조노 성황 축제

시바조노단지자치 오카자키 히로키

여러분은 가와구치시에 외국인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단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곳은 와라비 역에서 걸어서 8분. 와라비시와의 경계에 있는 시바조노 단지입니다. 시바조노 단지의 입주자 수는 약 5천명. 그 안에 약 2천명 이상이 외국인 주민입니다. 그 대부분이 중국인 주민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단지의 하나입니다.

그 시바조노 단지에서 2014년 10월, 11월의 합계 4일간, 아시아 국제 교류 이벤트“시바조노 성황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벤트의 테마는 지역 주민의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매년 증가해 가는 가운데, 일본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교류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웃 주민은 서로 불만이 쌓이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시바조노 단지 상점회에서는 지역주민 사이에 얼굴이 보이는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상점회에 와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2가지 목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벤트에서는 무대와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시바조노 단지의 중국인 주민의 어린이들에 의한 합창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열심히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국경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친근난만한 즐거운 노래 소리는 시바조노 단지의 노인 분들에게 무한한 원기를 주었습니다. 부스에서는, 시바조노 단지 자치회에 의한 종이 접기 교실이나 찜쌀 떡 만들기 등, 일본 전통문화가 소개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인 주민들께서는 가정의 맛 훈당과 중국의 전통놀이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음식이나 놀이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한 교류가 서로의 마음의 거리를 무척 가깝게 해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오지국제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이 전통음식 “포”와 베트남의 고향을 생각하는 노래, 사랑의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시바조노 성황 축제는 작지만 일본과 중국을 초월한 다문화 교류의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테마『커뮤니케이션』의 마무리는 캔들 라이트였습니다. 이 양초들은 지역주민들이 손수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컵에는 메시지를 쓰게 하여 이벤트가 끝난 후, 양초를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지역주민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의 증거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주민으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문화나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을 같은 장소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양초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기도의 등입니다. 이 때의 모습을 Youtube의 『시바조노 성황 축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바조노 단지 상점회 히라이 부회장님의 인사와 폐회사를 소개합니다.『시바조노는 멋진 마을입니다. 시바조노는 외국인에게도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시바조노는 모든 분들의 고향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이 하나되어서 시바조노를 고조시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시바조노 단지가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기를 기도하며.

Shibazono Nigiwai Festa

Shibazono Danchi self-governing body - Hiroki Okazaki

Do you know the housing complex where a lot of foreigners live? It is “Shibazono Danchi” located within 8 minutes walk of Warabi Station and around the city limits of Kawaguchi and Warabi. There are about 5,000 residents, including more than 2,000 foreigners and most of them are Chinese.

Shibazono Danchi held an Asian cultural exchange event, “Shibazono Nigiwai Festa” for 4 days in this October and November. Its slogan was “Communication” among the residents.

Before this event, though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had been increasing, they had had little contact with the Japanese ones. Sometimes this could cause both sides frustration toward each other. So the local shops association decided to hold the event to forge the close relationship among residents and revitalize the region by inviting them to the local shop street.

In the event, Chinese children performed a chorus happily in the stage which gave cheer to elderly residents. In booth area the Japanese residents introduced Japanese traditional culture, such as Origami and rice-cake making, and Chinese ones introduced a home cuisine, won-ton and traditional games. Exchange students from Vietnam introduced its traditional food, “Pho” and performed songs expressing feelings of nostalgia and love. This event gave the residents the opportunity for multi-cultural exchange of China, Vietnam, and Japan and brought everyone close to each other.

The Climax was Candle-Night with candles made by the residents. They wrote messages on candles and brought them home. These messages became the symbol of “Communication” among the residents. It is true that we often find it difficult for people with different backgrounds to live together, and many problems arise. However we do share the same time and place.

Candles are the flame of prayer that we hope to respect each other and live together. You can watch “Shibazono Nigiwai Festa” in YouTube. Finally, I will cite the words from Mr.Hirai, vice president of Shibazono local shop association.

“Shibazono is an excellent town. It’s kind foreigners. It’s a hometown for all the residents. I hope that we will cooperate to revitalize this town.”